

#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775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제출일자 : 2024년 04월 03일

라. 회부일자 : 2024년 04월 08일

### 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(동부, 중부, 남부, 북부) 통합 운영에 따라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고,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중단(2026. 3. 1.부터)에 따라 운영 기간을 명시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에 따라 각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(안 제5조, 별표)

나. 문구 등 정비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##### 가. 개정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소속 4개 기술교육원이 통합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기술교육원의 명칭에 이를 반영하고, 2026년 2월 28일자로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이 중단됨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것임.

##### 나.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현황과 통합운영의 필요성

- 서울시는 저소득층, 실업자 등 취약취업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·창업 관련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4개소의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음.

#### < 서울시 기술교육원 현황 >

구 분	중 부	남 부	동 부	북 부
위 치	용산구 한남동	경기도 군포시	강동구 고덕동	노원구 상계동
최 초 명 칭	서울특별시립 소녀관	엘림직업훈련원	서울특별시립 삼성원	서울특별시립 상계직업훈련원
설 립 년 도	1957	1988*	1953	1990
근 무 인 원	38명	25명	45명	42명
위 탁 법 인	한국생산성본부(통합운영)		경북대학교	남서울대학교
위 탁 기 간	'22.3.1~'25.2.28		'22.3.1~'25.2.28	'22.3.1~'25.2.28
'24년 예산	4,670백만원	3,240백만원	5,980백만원	5,236백만원
학 과 / 인 원	40/1,748	19/974	45/1,720	50/1,758
서울시교정	25/1,248	12/550	26/1,215	29/1,251
국립교정	15/500	7/424	19/505	21/507

\* 1991년부터 엘림복지회가 서울시내 시설을 기부채납하여 28년간(1991.8.~2019.4.) 수탁운영함.

- 당초 서울시 직업훈련시설은 시설별로 명칭과 수탁기관을 달리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부터 명칭이 ‘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’으로 단일화되었음.
- 그 후 2022년부터 서울시는 중부와 남부 기술교육원의 수탁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바, 이는 중부 및 남부기술교육원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<sup>1)</sup>와 기술교육원별 학과 중복, 교수 역량 미흡, 산업구조재편에 따른 학생 모집률 및 취업률 감소, 과도한 행정인력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면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<sup>2)</sup>.
- 한편 서울시는 중부 및 남부 기술교육원의 통합위탁을 추진하면서 통합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후 4개 기술교육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는바, 이를 위해 추진된 용역<sup>3)</sup>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별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.

**< 중부·남부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평가지표별 결과 >**

평가 분야	평가지표	주요내용
교육 운영	교육과정 편제 합리성 (통폐합사례)	• 중부와 남부의 주얼리, 헤어디자인 관련 중복학과의 경우 남부의 정원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아, '23년 중부 캠퍼스로 정원을 통합함에 따라 정원 충족률 100% 달성
	교원 운영 개선 실적 (교수 및 강사 현황)	• 두 캠퍼스 모두 시간강사 인력 활용 증가 (중부 '21년 65명 '23년 99명, 남부 '21년 27명, '23년 36명)
교육	교육과정	• 중부의 경우 '19년대비 '22년 취업률과 정원충족률 평균 및

1) 원장의 성비위, 회계처리 미숙, 계약체결 지침 미이행, 불투명한 교육생 선발시스템 운영(이상 중부 기술교육원), 장기수탁에 따른 시설 사유화 및 방만 운영(이상 남부기술교육원)  
 2) '기술교육원 위탁운영 개선 컨설팅'(2020.5.~7.)에 따라 남부와 중부기술교육원을 통합운영함.  
 3) '중부·남부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성과평가 용역'(2023.12.~2024.4.), (사)공공기관경영연구원.

운영 (결과)	경쟁력	<p>평균을 상회하는 위치에 더 많은 학과 군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남부의 경우 평균상회 지점에 군집형성의 조짐</li> </ul>
	교육과정 신규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부의 경우 최근 NCS개발 직무에 적합한 학과 신설</li> <li>남부의 경우 신규성보다는 교육대상자 맞춤형 학과의 신설</li> </ul>
운영 혁신 (활동 /제도)	조직편제의 변화 및 조직 생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·남부 모두 인당 생산성의 효과가 미약 (공공조직의 특성으로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 고용승계 이루어진 이유)</li> </ul>
	직급체계의 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합조직 운영을 위하여 직급체계 통합</li> </ul>
	보수체계 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합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수체계 통합</li> </ul>
	업무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부분의 Best Practice 관행이 중부에서 남부로 이전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남부에 적용</li> </ul>
운영 혁신 (결과) *조직 문화	조직문화 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합 후 중부의 기 표준화 된 규정이 남부에 적용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캠퍼스의 조직몰입도</li> </ul>
	통합활동 인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관생산성, 고유미션달성, 개인역량고취 측면 모두 남부캠퍼스의 구성원 인식도가 높게 나타남</li> <li>두 캠퍼스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 多</li> </ul>

- 또한 동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로 ▶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유사 교육훈련프로그램 대비 차별적 우위성 확보, ▶기능훈련과 기술교육의 수준 차이, 지역기반 구인 수요와 구직요구,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교육 훈련기관으로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음.
- 한편 서울시는 군포시에 위치하여 교육생 모집이 어렵고 시설활용도가 낮아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로의 이전이 요구된 남부기술교육원은 이전 검토부지 3개소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(B/C 비율)이 매우 낮게 조사됨<sup>4)</sup>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른 3개 기술교육원에 분산하고 남부 기술교육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함.

4) ‘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’(2023.4.~2023.12.), 한국직업능력연구원.

## < 남부기술교육원 이전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결과 >

- (원안) 남부기술교육원 동일 학과(13개, 550명), 운영인력(25명) 이전 시
    - 현재 규모(인력, 학과수) 유지·이전시 필요면적 : **전용 4,285㎡ 이상**
  - (대안) 교육과정 수요조사 반영 후 이전 시(교육생 정원, 운영인력, 필요면적은 동일)
    - 희망직종 순 : 경영행정사무직(47%), 정보통신(39%), 사회복지(36%), 예술디자인 방송(31%), 미용예식서비스(23%) 등 직종별 분류
- ※ 교육과정 개편 시 취업을 증대에 따른 편익증가 효과로 B/C값 개선 효과 있음

구분		B/C Ratio
원안	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	0.36
	온수동 럭비구장	0.37
	독산동 임대산업시설	0.24
대안	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	<b>0.41</b>
	온수동 럭비구장	<b>0.42</b>
	독산동 임대산업시설	<b>0.27</b>

-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4개 기술교육원의 위수탁계약이 만료 되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을 위해 동 조례 별표에 규정된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고,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 일자를 명시한 것임.
-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기술교육원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경직적인 인사·조직 운영체계를 해소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.
- 다만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는 시설 등을 폐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만, 동 개정조례안은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위해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

명시한 동 조례 별표에 폐지 일자를 명시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 
있으나,

이는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론의 여지가  
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.

- 그러나 남부기술교육원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시점은 2026년 2월  
28일이라는 점에서 향후 2년 동안 서울시나 시의회는 정책방향이  
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.
- 또한 기술교육원 노조는 고용안정과 기술교육원의 안정적 운영을  
위해 재단법인화를 요구하고 있고,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 
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반대하는 151건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 
서울시는 민원 해소를 위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최범준	02-2180-8056